

해외출장 요약 (일본 도쿄)

부서 : 교통시스템연구실

자료제공 : 유경상

작성일 : 2018년 03월 27일

게시요망일 : 2018년 03월 27일

제목 :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사례조사(도쿄)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배경

-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수탁과제인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학술 용역」의 연구를 위해 도로의 건설, 관리에 관한 국외사례 조사
- 일본 도쿄의 지하도로 운영 및 도로관리 현황과 도로 입체개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제 수행에 참고하고자 함

2) 활동 내용

- 도로 입체개발 사례 조사(토라로몬 지구, 시오도메지구)
- 중앙환상선 지하도로 조사
- 도로/철도 상하부 공간 활용 현황 조사(니시다이 주택단지, 아키하바라)
- 도쿄 생활권 도로(이면도로) 관리현황 조사 등



토라노몬지구(입체도로)



아키하바라(하부공간 활용)

	
니시다이	도쿄 이면도로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최근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상업적/공공적 목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제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상업적 목적보다는 공공도서관, 쉼터, 체육관 등 보행자,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쿄 토라노몬 지구, 아키하바라 사례와 같이 지역 특성에 따라 도로 상하부 공간을 일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로 상하부 공간뿐만 아니라 서울에 산재하여 지역을 단절하고 있는 철도차량기지의 상부 공간도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정비가 필요. 도쿄 니시다이 사례와 같이 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도쿄 중앙환상선은 차량의 소통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된 지하도로로 서울의 제물포도로, 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목적과 다소 다르나, 최근 도로정책의 추이가 지상부 공간은 사람·환경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차량통행 공간은 지하에 재조성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지하도로의 건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상시정체 해소 및 도시고속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동서 지하도로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쿄의 생활권 도로관리는 불법 주차 차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잘 되어 있음. 서울의 자치구 관리 생활권 도로를 통일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